

# 안양시 지역사회 홍역 유행 중

## 개요

안양시 소재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홍역 유행 중입니다. 현재까지 총 26명의 확진환자\*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21명이 의료진 및 병원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경기도는 이에 대한 심층역학조사와 더불어 5,912명\*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, 환자 격리 조치, 의료기관 종사자 홍역항체검사 실시, 선별 진료소 설치·운영, 면역력이 없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므로,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(\*2019.4.29. 10:00 기준)

## 의료기관

### 【홍역 임상증상】

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, 콧물,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,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. 그러나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가벼운 발열과 발진이 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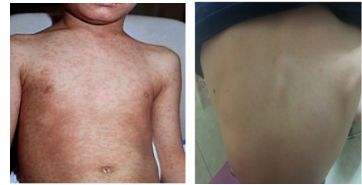


사진1. 홍역으로 인한 발진  
(좌: 영아의 전형적 발진, 우: 청소년의 비정형적 발진)

[출처] 질병관리본부

### 【홍역 의심환자 내원 시】

- 홍역 유행 및 예방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주세요.
- 의심환자에게는 분리된 대기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, 수술용 마스크를 씌워주세요.
- 의료진이 의심 및 확진환자를 대면할 때는 N95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그리고 즉시 관할 보건소\*에 신고해주세요. (\*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-8045-4490, 만안구보건소 031-8045-3492)
- 의심환자 진료 및 퇴원 후,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, 환자가 접촉한 표면을 환경 소독해주세요. 접촉자에게는 마지막 노출 시점부터 최대 잠복기간(21일)까지 증상 발생 가능 기간임을 안내해주세요. 증상 발현 시,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해주세요.

### 【접촉자 범위 선정 및 관리】

- 접촉자 범위는 홍역 확진환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를 포함합니다.
- 대기실, 진료실, 응급실 등 홍역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실내공간\*을 이용한 모든 사람입니다.  
\* 홍역 확진환자 진료 전 1시간부터 떠난 후 2시간까지 이용자
- 홍역 확진환자와 접촉 5일 이후 발열과 발진이 있는 의심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세요.

### 【예방접종 홍보】

- 내원 환자 중 MMR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세요.

### 【의료인이 홍역 확진환자에 노출된 경우】

- MMR백신은 72시간 이내 접종, 면역글로블린은 6일 이내에 접종을 권고합니다.
- 1967년 이후 출생하였으며, 과거 홍역 확진을 받은 적이 없고, MMR백신 2회 이상 접종력이나 홍역 항체가 없는 의료인은 노출시점부터 5~21일간 업무배제를 권고합니다.